http://www.etak.or.kr

English Teachers Association in Korea

NEWS LETTER Issue 2019-1호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Email: etaknewsletter@gmail.com

회장 인사말

Presidential Message



신록의 푸른 오월에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는 5월 18~19일 이틀 동안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에서 영상영어교육학회와 공동으로 2019 ETAK-STEM International Conference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학술대회는 우리 학회 창립 25주년 기념행사로 성대한 학문적 축제의 장이자 친교의 만남이 되길 기대하면서 회원님들 모두가 동참하셔서 국내외 영어교육에 종사하는 학교 선생님, 연구자, 학자 그리고 대학원생들과 더불어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한 걸음 성숙한 자아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학문의 발전은 이론과 실제의 양축이 상호 간에 원활한 융합을 통하여 다양한 산출을 만들어 내는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올해 학술대회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도전의 실마리로서 '디지털 영어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법들을 소개하고 논의할 것입니다. 5개국 30여명의 외국학자들이 참가하며 국제적으로 저명한 석학들이 디지털 영어교육의 이론과 영어 학습 방법들을 소개하는 동시에 국내의 전문가와 초·중등학교 영어 선생님들의 현장 연구사례도 발표됩니다. 또한 금번 학술대회는 '영어교사 직무연수'도 병행하여 명실 공히 초·중등·대학의 공교육 영어교육과 사교육 차원의 영어교육이 함께 논의되고 시연되는 알찬 행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쁜 일상을 보내시느라 어렵겠지만 이번 5월 학술대회는 꼭 참석하시어 여러분의 영어교육 역량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친교를 넓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만 줄이고 학술대회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3일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장

임 병 빈 드림

축 사

Congratulatory Speech



㈜ 잉글리쉬 무무회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예쁜 꽃들의 향기와 초록이 짙어가는 공주대학교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와 영상영어교육학회의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미디어 기반 디지털 패러다임을 활용한 효율적인 영어 교수학습'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신 한국영어교육학회 임병빈 회장님, 영상영어교육학회의 정한기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1세기 디지털 혁명과 함께 영어의 세계화가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지구촌 모든 지역과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세대들의 말하기 중심 영어학습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8년 초·중·고등학교에 디지털교과서와 소프트웨어(SW) 교육이 도입되었습니다.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의사소통 중심의 기초 영어 <말하기+쓰기>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디지털교과서는 학습매체를 바꾸어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바꾸게 하였고, 학교에서 다루는 학습내용과 평가방법도 변화시키면서 기초 영어 <말하기+쓰기>를 완성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암기학습이나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아니라 스스로 듣고 말하고, 읽고 말하고, 쓰고 말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말하기+쓰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교재내용과 학습방법, 매체활용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생활필수품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포노 사피엔스라 는 신인류가 출현했다고 말합니다. 디지털화된 정보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간의 의사소통 수단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과 다양한 SNS 등의 확산으로 급속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세계화 시대에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정보력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구어로 자리잡은 영어의 중요성이 더욱 더 증대되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체계적인 영어교육은 세계의 무한경쟁 속에서 개인과 국가 모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과학기술이 진화되면 교육프로그램과 학습방법도 진화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가르치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차별화된 학습 시스템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이 영어학습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 교육 문제는 더 이상 학교나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사회 구성원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운영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창의성이 요구되고 있고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영어 교수·학습 방법과 솔루션을 공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4일

김성수

ETAK 사반세기의 역사: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임병빈, 공주대)

I. 들어가는 말

1994년 8월 15일 공주대학교 도서관 강당에서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ETAK)의 창립 학술대회 및 총회가 개최되었다. 공주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총동창회가 해마다 8월 15일 열려오고 있던 즈음에 당시 동창회 총무를 맡고 있던 필자가 제안하여 동창회 모임을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학술대회를 병행한 행사를 갖게 되었다.

ETAK 학회지 창간호의 학회소식(P. 212)에 의하면 제 1회 학술대회는 173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우리 학회 자문위원이신 전북대학교의 전병만 명예교수의 특별강연('언어 평가의 새로운 경향')과 더불어 논문 발표가 있었다. 아울러 1995년 1월 12일 대전 유성에서 ETAK 겨울 세미나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1994년 12월에 ETAK은 교육부의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전국 규모의 정규 학회로 등록을 마쳤다. 한편, ETAK 창간호는 1995년 8월 5일자로 발간되었으며 총 8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ETAK은 1994년 학회 창립 후 2002년 등재후보 학술지를 거쳐 2005년에 등재학술지로 인준을 받았으며 명실공히 국내의 영어교육 학문 분야에서 주요 학술단체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학술지 『영어어문교육』의 초기본들과 최근호]

II. 학회 창립 25년간의 회고

1. 창립기(1994년~2001년)

'학회 회칙'과 '논문투고 규정'을 마련하고 회칙에 따라 초대 임원을 선임하였다. 초대 회장으로는 당시 공주사대 영어교육과 총동창회장을 맡았던 충남교육청 김용경 장학사가 선임되었다. 부회장단은 원광대학교 엄정옥 교수, 한남대학교 이상윤 교수, 성환고 이대원 교감 그리고 공주교육청 오양식 장학사로 구성되었다. 총무 이사진은 공주사대 강용구 교수, 최종욱 교수와 필자가 맡았다. 한편, 학회 재원을 마련하고자 강용구 교수와 필자는 ㈜지학사와 영어참고서 출판 계약을 맺고 「하이라이트 고교 영문독해 시리즈」 전 3권 선인세로 금 일천만원을 수령하여 전액을 학회에 기부하였다. 당시에 이와 같은 재원 마련이 가능했던 배경은 공주사대 영어교육과 출신 현직 영어교사들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배출되었으며 그 전통과 실력을 인정받았기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아진다.

학회와 학술지 명칭의 제정에 있어서 「영어어문교육(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ELLT)」이라고 칭함은 영어교육을 근간으로 삼고 영어학과 영문학을 접목시켜 궁극적으로 영어교육을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함과 동시에 그 연구 결과를 현장교육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통섭적이고 융합적인 의미가 내포된 「영어어문교육」이라는 명칭을 필자가 고안하여 제안하였고 학회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학회 창립기의 임원진 구성에 관한 역사적 개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용경 초대회장이 연임하였고 뒤를 이어 이상윤 한남대학교 교수가 제 3대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2000년 8월에 고려대학교 박경자 교수가 제 4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박경자 회장 재임 시에 본인이 창립한 범태평양응용언어학회(The Pan-Pacific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PAAL) 소속 회원들 다수가 우리 학회 회원으로서 참여하는 계기가 되

ETAK 사반세기의 역사

었으며, 우리 ETAK 회원들도 PAAL 회원으로서 가입하여 양 학회 간에 처음으로 자매 결연을 맺고 학술 교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2. 도약기(2002년~2005년)

2000년부터 집중적으로 학회 조직을 정비하는 동시에 학술지 논문 투고·심사·편집·출판 과정의 체계성과 공정성을 마련하여 마침내 2002년에 「영어어문교육」이 등재 후보 학술지가 되었다. 그리하여 학회지 「영어어문교육」 8권 2호의 표지에 '이 학술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음'이라는 사사 표기가 인쇄되고 처음으로 판권지에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로 표기되었다.

2004년에 필자가 제 6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학회 발전과 학술지의 등재지 인준을 목표로 임원진과 함께 노력한 결과 마침내 2005년 등재학술지가 되었다. 이것은 학회 창립 이후 가장 큰 경사였다. 2006년 1월 유성 '만나회관'에서 열린 학회 신년교례회에서 참석한 회원 및 임원들과 함께 등재학술지로 인준된 경사를 축하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내실화된 노력을 통하여 국내 영어교육 분야의 우수 학회로서 발전적 활동을 이어나가기를 다짐하였다.

3. 발전기(2006년~현재)

2006년 9월에 필자는 제 7제 회장으로 연임되어 국내 영어교육 학문분야에서 이미 입지를 공고히 한 ETAK학회와 학회지 ELLT의 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전체 회원 및 임원과 더불어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시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였다.

먼저, 회원의 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회원 수가 600명을 넘었으며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하여 학회 임원으로 선임하였다. 2007년 6월에는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였다. 'Emerging Issues and Challenges in English Education'이라는 주제로 미국 하와이대학교 Richard Day 교수의 기조강연을 비롯한 총 55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2007년에 필자는 ETAK회장으로서 국내의 영어교육 관련 학회장들에게 한국영어교육학회총연합회(The United Korea English Teachers Associations: UKETA)결성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2009년에 현대영어교육학회(현태덕 회장),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최수영 회장), 영상영어교 육학회(이자원 회장), 영어언어과학회(정동빈 회장), 조기영어교육학회(정동빈 회장)와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가 UKETA를 결성하여 학회 간에 학술대회 행사시에 상호 교류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자매학회 회원들 간의 학술지 논문 투고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호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한편, 2008년에는 MB정부 초기에 제기되었던 '영어공교육 강화정책'과 관련하여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된 「영어공교육강화단」을 방문하여 정책 시행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한 바도 있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영어교육학회(Asia TEFL) 이효웅 회장과 함께 ETAK이 주도적으로 서울 Credu 빌딩에서 6개의 국내 영어교육학회가 동참한 가운데 영어공교육강화방안의 문제점 진단 및 대안을 주제로 학술발표와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최근 들어 2018년 11월 24일 공주대학교에서 한국영어교육학회연합 행사로서 '한국영어교육의 발전과제와 전망: 수능 영어시험/영어교육정책/디지털 영어교육/표현능력 강화'라는 주제로 국내외의 11개 영어교육 관련 학회 주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본 세미나는 ETAK이 주관하였으며 한국영어교육의 현안적인 주요 과제별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한 의미 있는 학술활동이자 학회 간 상호 교류활동으로서 향후에도 이와 같이 지속적인 전국학회연합세미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민찬규 교수(한국교원대) 제 8대 회장, 이은표 교수(을지대) 제 9대 회장, 송해성 교수(공주대) 제 10대 회장, 이종복 교수(목원대) 제 10대회장, 제 11대 회장 고 이현구 교수(나사렛대)가 ETAK의 회장을 역임하여 학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시 한 번 이 지면을 빌어 ETAK의 역대 회장단과 임원진 그리고 모든 회원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ETAK 사반세기의 역사

Ⅲ. 맺음말

학회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올해에는 특별히 자매학회 STEM과 함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오는 5월 17 ~ 19일 사이에 공주대에서 열릴 2019 ETAK & STEM International Conference는 4차 산업사회를 맞이한 새로운 도전의 시대에 '미디어 기반 디지털 영어교육의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내외의 석학, 교수, 현직 영어교사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여 학술 발표와 토론 그리고 시연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영어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유익하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지나온 25년의 세월을 돌이켜 보면 숱한 과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때 그 때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성취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학회 전체 회원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새로운 이정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음을 옮겨야 하겠다.

(※ 보다 상세한 ETAK의 역사는 학회지 21권 2호(2015)에 게제된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창립 20년사의 역사적 회고와 미래 발전 방향" 논문의 내용을 참조)



[학술지 『영어어문교육』의 모음]



회원 동정

*** 회원 여러분의 연구 활동과 인사에 대한 동정을 알려드립니다. 가나다 순입니다.**

1. 인사 동정

◎ 박치홍(천안여고)
– 충남 SETA 총무 선임

◎ 양창용(제주대)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장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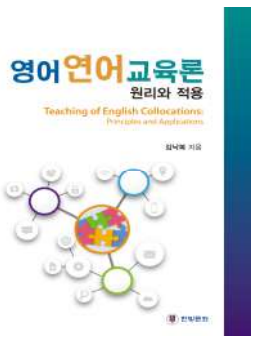
◎ 유철(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 KOSETA 회장 연임

◎ 원유식(충남 외교원)
– 충남외국어교육원 연수부장으로 재직

◎ 이종복(나사렛대)
– 2019년 목원대 교수협의회장과 목원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선출.

2. 연구 활동

◎ 김낙복(나사렛대)



– 서명: 영어연어교육론: 원리와 적용
– 발간년도: 2019
– 출판사: 한빛문화사

◎ 김서영(계룡중)

– 계룡시 영어 교사 대상 'Google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어학습활동' 주제로 교사 직무연수 주관(2019년 5월)

◎ 배지영(공주대)



– 서명: '그림책을 활용한 어린이 영어교육'의 개정판으로 기획된 '그림책 활용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의 공동 집필
– 발간년도: 2019
– 출판사: 교육과학사

◎ 임병빈(공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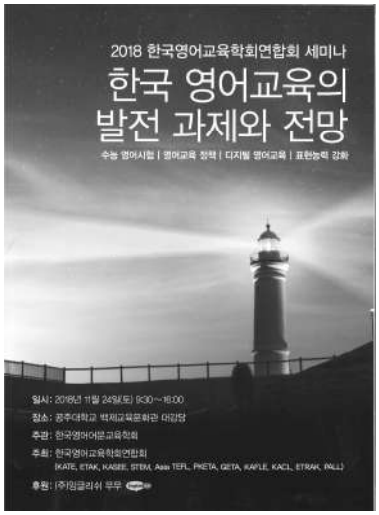
– 2018 한국영어교육학회연합회 세미나가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회장 임병빈, 공주대 교수, 사진) 주관으로 지난해 11월 24일 공주대 백제교육문화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음.



[2018년 세미나 개회]

회원 동정

– 본 세미나에서는 '한국 영어교육의 발전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 하에 발표와 토론을 실시하였음.



[2018년 세미나 포스터]

– 2018년 세미나에는 전국의 영어교육학술단체11개 학회가 공동 참여하여 영어교육의 문제점 진단과 발전 방안을 제시한 협동적, 선도적 활동의 의미를 지님.

– 주제 발표에서는, '영어평가의 최근 흐름과 영어교육에의 시사점', '대 변환기 영어교육 정책의 방향: 교육, 경제·산업, 복지의 선순환 구조 만들기'와 '영어학습 격차의 원인과 개선 방향' 등이 다루어짐.

– 이후 이어진 주제별 지정토론은 '표현능력 강화를 위한 실용영어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임병빈 학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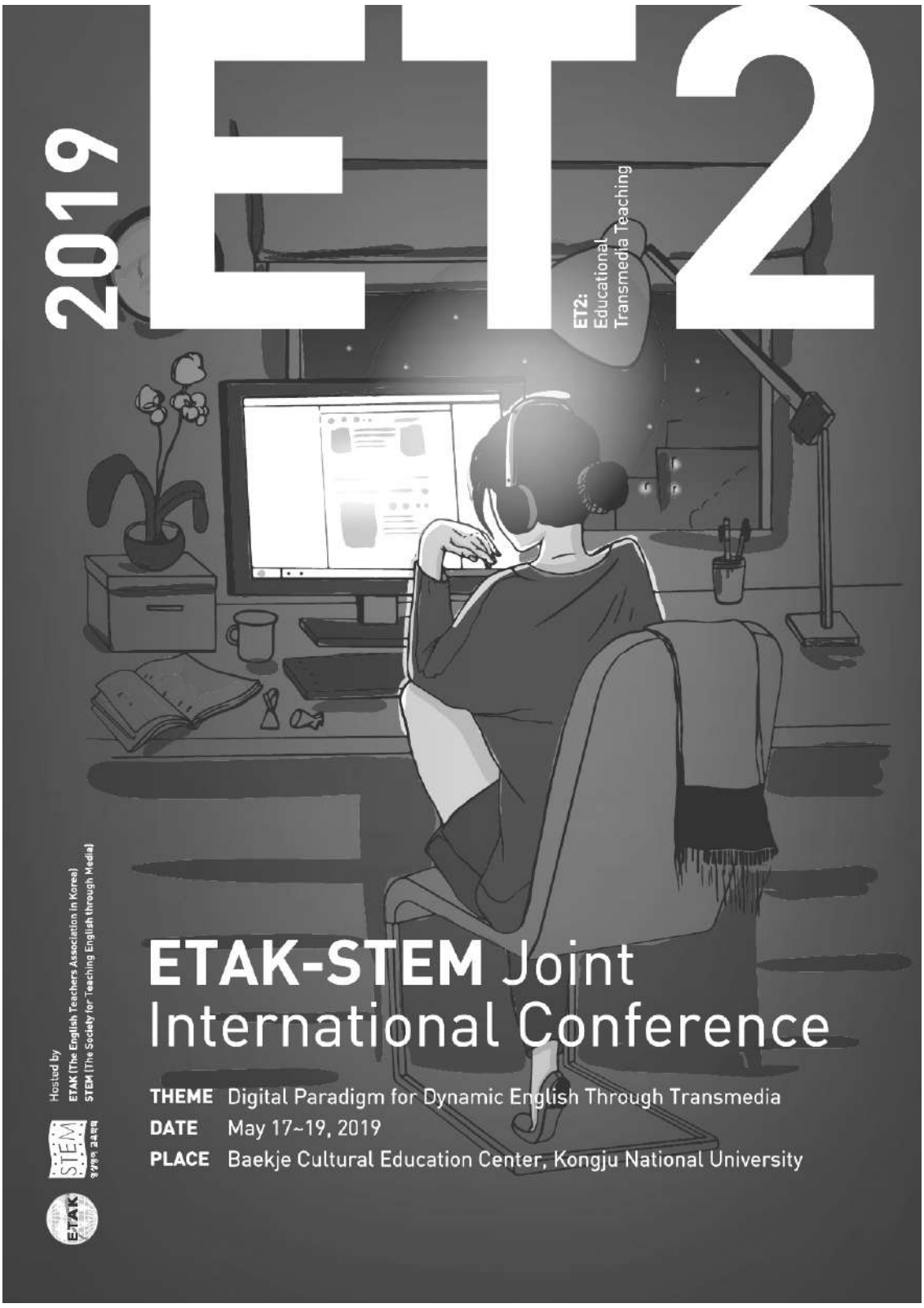
[2018년 세미나 지정토론 진행]

– 지정토론의 논제로서 '말하기, 쓰기 평가 시험 확대 (서술형 평가, 수행 평가)', '영어교육 정책 변화 (교수·학습 방법)', '디지털 교과서 활성화', 그리고 '영어 격차 해소 방안 (초1, 2학년 영어교과 도입)'를 두고 영어교육 전문가들의 미래 영어 교육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짐.

공지 사항

1. 학술대회 개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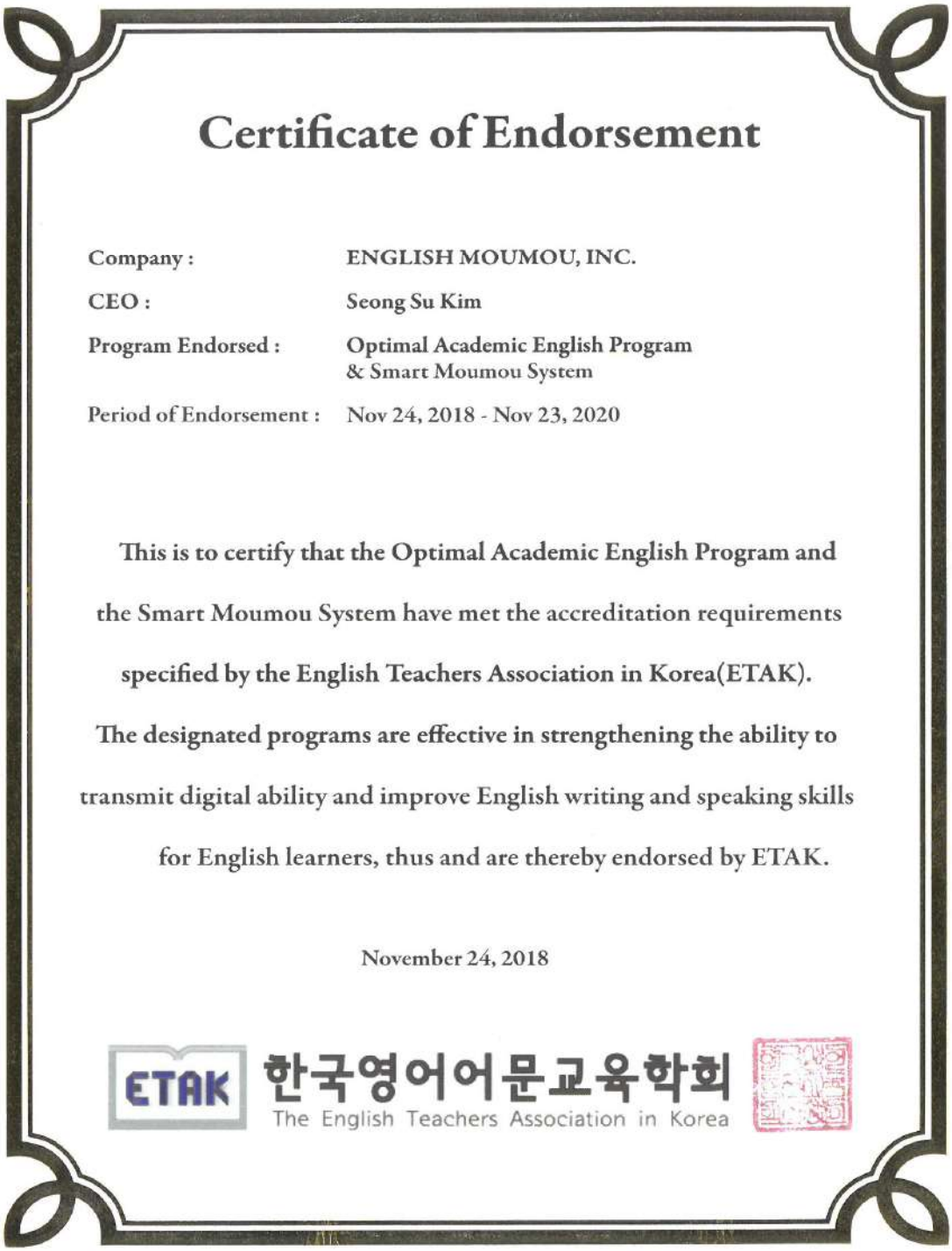
- 2019 ETAK-STEM International Conference
- 일시: 2019년 5월 18일(토)~5월 19일(일)
- 장소: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



공지 사항

2. 잉글리쉬 무무 우수 영어교육기관 인증

- ETAK은 ㈜ 잉글리쉬 무무의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콘텐츠를 평가하여 우수 영어교육기관으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ETAK이 ㈜ 잉글리쉬 무무의 평가인증기관이 되었다.



Certificate of Endorsement

Company : ENGLISH MOUMOU, INC.

CEO : Seong Su Kim

Program Endorsed : Optimal Academic English Program & Smart Moumou System

Period of Endorsement : Nov 24, 2018 - Nov 23, 2020

This is to certify that the Optimal Academic English Program and the Smart Moumou System have met the accreditation requirements specified by the English Teachers Association in Korea(ETAK). The designated programs are effective in strengthening the ability to transmit digital ability and improve English writing and speaking skills for English learners, thus and are thereby endorsed by ETAK.

November 24, 2018

ETAK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The English Teachers Association in Korea

공지 사항

3. 회원 가입 안내

– 우리 학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선생님들이 학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특히 대학교에 재직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학교 도서관이 본 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가입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이사: 변향숙(공주북중)

이메일:sook9972@hotmail.com

4. 학회 발전 기금 모금 안내

– 우리 학회에서는 학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발전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기금은 학회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후원계좌: 농협 (351-0261-5617-23)

예금주: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 현재까지 발전기금을 기탁해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금을 보내주신 임원과 회원 그리고 외부기탁자께 감사드립니다.

* 가나다 순입니다.

강문구	300,000원	김성수	5,000,000원
김영수	200,000원	김옥례	1,000,000원
김정희	600,000원	남은희	200,000원
박성만	100,000원	송해성	1,000,000원
성명희	300,000원	양은미	100,000원
윤경옥	50,000원	윤민자	50,000원
이강영	200,000원	이노신	500,000원
이병천	100,000원	이혜경	300,000원
임병빈	1,000,000원	임은화	50,000원
전병만	500,000원		

㈜ 케임브리지 500,000원

홍영숙 200,000원

익명(신한02...) 100,000원



영어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



배지영(공주대학교)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역량과 글로벌 시각을 갖추어야 하고, 그 역할을 영어 교육이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영어교육의 목표는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해봐야 하는데, 한국의 영어교실 현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학급 내 상위 학생과 하위 학생간의 영어 수준차이가 점점 커지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 학습부진 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누적되어 그 수가 점차 늘어나는데, 영어 학습부진 학생이 발생되는 단계를 보통 두 시기로 보고하고 있다. 첫째는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이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과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초등 영어 부진 학생이 발생하는 시기가 읽기와 쓰기가 시작되는 3학년 2학기부터이며, 영어 문자 양이 늘어나는 5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어 학습 부진학생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이완기, 2014). 두 번째의 경우는 학습자들이 중학교 1학년으로 학교급이 바뀌는 시점을 지목한다. 학습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영어 공부가 어려워진 시점을 중1(31.3%), 중2(25.3%), 초3(12.1%)이라고 응답하였는데(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 이는 중학교 1학년 시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체감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시기라서,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여하튼 이 두 시기를 종합하여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문자 언어의 증가로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문자 언어가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영어 학습부진학생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문자 언어에 대한 충분한 노출 부족, 학습부진아의 문자 인식 능력의 부족, 학습 부진아에 대한 문자 지도에 있어서 적절한 지도 방법의 부재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부진은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 시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학생들이 영어학습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는 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의 영어 교육의 편차(교과서 구성, 교수·학습 방법, 지문의 난이도, 문법 비중 증가 등)가 매우 큰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영어 교과의 특성상 계열성과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단계의 학습이 부족하면 그 다음 단계의 학습에 어려움과 곤란을 느끼게 되며, 나아가 학습 포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박미현, 이성원, 2016; 오민주, 나경희, 2014). 중·고등학교 영어 학습부진 학생의 영어 읽기 부진 양상의 범위는 기초 음철법(phonics)을 적용하지 못하는 학생부터 또래 집단의 영어 읽기 이해(reading comprehension)뿐만 아니라 독해 전략 사용 능력까지 그 부진의 편차가 초등학교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습자가 소유한 읽기능력의 성취 여부가 초등학교를 넘어선 중등 이후의 일반적 학업성취 수준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그 결과로 인한 한 개인의 대학진학 및 사회적 성공 여부에도 결정적인

열린 논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Nagy & Anderson, 1984; Stanovichi, 1986), 중학교 단계의 영어 학습부진 학생의 읽기 부진은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세계 각국의 교육 형평성을 위한 노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7년 정부의 정책과제에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및 학습부진학생 개별 맞춤형 지도를 위한 교실 수업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면서,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지원에 국가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습부진이 되는 개인적, 환경적 변수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학습부진은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습관처럼 고착화된 경우가 많다보니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2014, 2015)의 보고에 따르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영어 교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과 동시에, 대체로 학교에서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지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수록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낮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부진학생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을 보고하였다.

영어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읽기 능력이 외국어 학습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학습부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초기 읽기 능력의 발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중·고등학생의 경우도 학습부진 학생들의 교육적 지원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는 학교급의 특성상 다른 학교급에 비해 학습부진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학습부진의 특징은 오랜 기간 학습 결손이 지속되어 왔을 뿐 만 아니라 학습동기 및 의지가 저하되어 학업 포기나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종합하자면, 중·고등학교 영어 학습부진 학생은 학습부진의 범위가 초등학생에 비해 크므로, 읽기와 문법의 보충 뿐 만 아니라 학습자의 영어 초기 문해력(음철법, 고빈도 어휘학습, 읽기 유창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요구된다. 나아가 초·중·고등학교 영어 학습부진 학생의 보정 프로그램에는 자기주도적 학습역량과 효과적인 영어 학습전략을 갖출 수 있는 훈련의 제공 등은 공통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미현, 이성원. (2016). 영어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스마트도구 활용 교육: 어휘학습을 중심으로.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1*(4), 93-120.

오민주, 나경희. (2014). 맞춤형 읽기 지도 활용이 학습부진 중학생의 영어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등영어교육, 9*(1), 81-98.

이완기. (2014). 초등영어 학습부진아의 발생 요인과 대책. *초등영어교육, 20*(1), 5-2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Nagy, W., & R. Anderson. (1984). How many words are there in printed school English? *Reading Research Quarterly, 19*(3), 304-330.

Stanovich, K. E. (1986). Matthew Effects in reading: Some consequenc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acquisition of literacy. *Reading Research Quarterly, 21*, 360-406.

서 평

『영어 교과교육 연구의 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Research in English Education*)



진승희(성결대학교)

2019년 1월에 출간된 『영어 교과교육 연구의 이론과 실제』는 한국 영어교과교육학회에서 기획한 다섯 번째 총서로서 영역별 영어 교과교육 연구의 기본 이론적 개념과 실제 연구 현황 및 방법 등에 대해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첫 부분에서는 영어교과교육 연구 의의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통해 영어 교과교육 연구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즉, 영어 교과교육 연구의 정의가 무엇이고, 이러한 연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연구의 일반적인 특징과 각 단계별 주요 특징뿐 아니라 실제 영어 교과교육 연구는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뤄지는지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따라서 영어교육 관련 학생, 교사, 연구자들이 영어 교과교육 연구의 기본 정의, 관련 연구의 범주와 대상, 연구의 종류, 방법 및 단계 등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이를 교육현장과 연관시켜 연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언어의 네 가지 기능과 언어 요소들을 중심으로 영역별 영어 교과교육 연구의 실제에 관해 일곱 장으로 구성하여 논의한다.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은 '읽기와 쓰기,' '듣기와 말하기'로 나뉘어 각기 제2장과 3장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그동안 영어 교과교육 관련 연구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온 주요 언어 요소 중, '발음'은 제4장에서, '어휘와 문법'은 제5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기존의 연구영역인 언어의 네 가지 기능 및 문법, 어휘, 발음 등 주요 요소 뿐 아니라 영어교육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주제 및 최근 교육 현장의 연구 흐름을 반영하여 나머지 장들에서 각기 아동문학, 멀티미디어, 코퍼스 영역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영어교과 교육에서의 문학작품의 활용가치에 주목하고 교육현장에서 실제적인 읽기 자료로 아동문학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문학의 정의 및 교육 효과, 아동문학을 활용한 교수법, 연구 동향, 연구설계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제7장은 멀티미디어 기반 언어교육 영역을 다루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네트워크, 스마트기기의 발달로 인해 교실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2011년 스마트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급변하는 현 교육환경과 21세기 미래 교실(예.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기술 기반의 미래형 교실)에 교사 및 관련 교육 전문가들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IT 전문 지식과 첨단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 및 연구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 장에서 멀티미디어 언어교육의 특징과

서 평

컴퓨터기반 언어 학습, 웹기반 언어 학습, 모바일기반 언어 학습, 디지털기반 언어 학습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에 따른 특징, 연구 동향, 탐구 주제, 연구 설계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멀티미디어 및 기술을 활용한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 교사, 연구자에게 매우 유용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8장은 코퍼스를 활용한 영어 교과교육 분야 연구로 교실 밖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는 영어 텍스트, 즉 영어 코퍼스에서 사용 용례를 추출해내는 콘코덴싱(concordancing)을 통한 영어 사용 현상에 대한 연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영어 교수학습에 있어서 제한적인 한국 EFL 환경에서 매우 효과적인 교육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장에서는 코퍼스와 코퍼스 언어학(Corpus Linguistics: CL)의 핵심 용어와 개념을 살펴보고, 코퍼스를 활용한 영어 교과교육 관련 연구 동향, 탐구 주제, 관련 연구 설계예시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 이러한 분야에 관심있는 독자들에게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어 교과교육 연구의 이론과 실제』에서는 영어 교과교육 연구라는 기본 개념과 여러 이론들을 이해하고, 각 영역별로 상이한 연구목표, 구체적 내용과 절차, 주로 통용되는 연구방법에 대해 살펴볼 수 있어 실제 교과교육 관련 연구에 임할 수 있는 기본적 지식 및 연구 역량을 기를 수 있어 유용하고 실용적이다. 각각의 장에서 여러 언어 영역 및 언어 요소와 관련하여 그 이론적 근간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그동안 이뤄져 온 연구주제들을 제시하고 있어 이해하기 쉽게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책의 주요 특징이자 장점으로 각 영역별로 실제 연구설계의 구체적 예시를 제안하고 있어 이 책을 읽고 향후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들이 밝힌 바대로 교육 현장의 영어교사뿐 아니라 영어교육 연구에 관심있는 학생,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하고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책의 내용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연구 영역으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혹은 '문화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문화수업 및 문화간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5년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을 살펴보면 영어교육에 '문화'의 요소가 강조되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교육의 목표는 '원어민 화자'가 아닌 '문화간 화자'로 변화하였다. 즉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에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으로 영어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의 핵심 용어와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교과교육 연구 동향, 탐구해 볼만한 연구주제, 관련 연구 설계예시가 있었으면 더욱더 시기적절하고 의미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자: 이상기, 이송은, 황은경, 박미애, 김기택, 배지영, 김규미, 이동주

출판사: 한국문화사

출판일: 2019년 1월 31일

학술지『영어어문교육』

1. 학술지 투고 안내

– 『영어어문교육』 25권 2호가 회원 여러분의 옥고를 접수받아 심사 중에 있습니다. 투고하신 논문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과를 알려드릴 것이며, 학술지는 6월 30일 발간 예정입니다. 23권 1호부터 책자는 50부만 인쇄하고 나머지는 전자저널로 발간됨을 공지합니다.

2. 논문투고 안내

–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인 『영어어문교육』이 회원 여러분의 논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에서는 영어교육적 내용이 함축된 영어학, 영미문학, 그리고 영어교육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회원 여러분이 수행하셨던 개별 또는 공동 연구를 모두 환영합니다. 논문을 작성하실 때는 ETAK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시고 본 학회에서는 연구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니 윤리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투고는 JAMS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논문을 투고하실 회원께서는 MS-Word(2003 버전 이상)로 작성하신 논문 파일을 학회 JAMS https://etak.jams.or.kr/에 논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지에 논문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옥고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어문교육』의 발행일자 및 논문 투고 마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호: 3월 30일 (원고마감 1월 15일)
   국제호(영문판)

2) 2호: 6월 30일 (원고마감 4월 15일)

3) 3호: 9월 30일 (원고마감 7월 15일)
   국제호(영문판)

4) 4호: 12월 30일 (원고마감 10월 15일)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임원 명단

ETAK Board Members

(2018. 09. 01 ~ 2020. 08. 31)

회장 임병빈(공주대)

부회장
기획 강문구(공주대)
국제 이강영(충북대)
운영 이노신(호서대)
학술 홍영숙(중원대)
연구 성명희(을지대)
출판 이정원(충남대)
홍보 남은희(한경대)
섭외 전현주(신한대)
미래전략 김준식(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화 김옥례(한국교통대)
정보 김정희(충남도립대)
편집 장형지(선문대)
윤리 이혜경(공주교대)

총무이사
이노신(호서대, 수석)
박성만(단국대, 회원관리)
주미란(단국대, 연구재단)

재무이사
박미화(천안봉서초, 재무관리)
변향숙(공주북중, 회원관리)

감사
이학문(한밭대) 엄태송(목원대)

운영이사
오관영(전남대, 책임) 김지은(가톨릭관동대) 최성묵(경북대) 배대권(경북과기대 최희섭(전주대) 김서영(공주대) 이지혜(공주대) 양창용(제주대) 박성만(단국대) 안희성(교육부) 곽규태(순천향대)

학술이사
정경옥(한남대, 책임) 하명애(대전대, 책임) 고현숙(울산대) 김기택(경인여대) 황선유(서원대) 변지현(한남대) 황필아(서원대) 김성우(서울대) 정은숙(춘천교대) 진정숙(인제대) 김정옥(원광대) 조형숙(서원대)

연구이사
김현진(청주교대, 책임) 김남희(조선대, 책임) 김성식(전주교대) 백지원(대구대) 안경자(서울교대) 이선영(사이버외대) 정채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성희(숭실대) 이희경(고려대) 명혜련(호서대) 안서현(고양시교육청)

출판이사
정진완(전북대, 책임) 윤경옥(공군사관학교, 책임) 신수정(침신대) 조수경(외국어대) 김신혜(계명대) 강수자(배재대) 정영숙(청주교대) 전유아(한양대) 강경옥(임실초) 김영희(청운대) 송지연(대전대) 이현우(인하대) 김지숙(능률교육)

홍보이사
예진희(용인송담대, 책임) 최문갑(갈등관리연구원) 김혜정(광주여대) 김지영(중앙대) 류호열(한경대) 김수연(안양대) 김혜경(인천대) 김묘경(숙명여대) 윤성원(한양대) 이남미(호남대) 임은화(천안두정고) 박치홍(천안여고)

섭외이사
성창규(목원대, 책임) 왕건(용인송담대, 책임) 김판수(숭실대) 김희진(사이버외대) 배지영(공주대) 황정희(평택대) 박용호(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혜령(서원대) 양정임(대전대)

미래전략이사
박광래(백석문화대, 책임) 임정완(대구대, 책임) 류근호(호서대) 김순미(숙명여대) 황규홍(동아대) 이종익(Newsis) 이재영(호서대) 김정민(공주교대) 강혜영(교육부) 홍선미(국제사이버대학교) 고성란(국민대) 조일구(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윤상돈(교육부)

문화이사
박휴버트(공주대, 책임) 문은주(배재대, 책임) 전선영(공주교대, 책임) 이윤경(대구가톨릭대) 이주희(경상대) 김영민(대구교대) 양승주(거제대) 김지선(안양대) 이선혜(서일대) 박채희(선문대) 방희정(한밭대)

정보이사
서지영(국민대, 책임) 이신재(호서대, 책임) 김진성(현도정보고) 김영현(명신여교) 김정희(백석대) 조보경(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창원(제주대) 김지연(용인바이오고) 임경빈(한라대)

기관이사
이관호(K-books) 임용생(유학닷컴) 강동준(천재교육) 주종수(해법에듀) 김규현(미드잉글리쉬) 김재관(잉글리쉬무무) 노상충(당근영어㈜캐럿글로벌) 최문갑(내일신문)

편집간사
이명관(안양대) 임미진(국민대) 임현선(고려대)

편집이사
강규한(국민대) 김경자(조선대) 김지은(가톨릭관동대) 서은미(호원대) 홍선호(서울교대) 류도형(국민대) 임정완(대구대) 이강영(충북대) Miki Bong(신슈대) Adrea Lee(건국대) Terry Locke(Waikato University) 김낙복(나사렛대) 양은미(꽃동네대) 이지연(총신대) 이동환(경인교대) 장복명(남서울대) 박성만(단국대) 전문영(서울여대) 박지선(한국교육과정평가원) 민호기(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육청민(한림대)

윤리이사
전윤실(협성대, 책임) 윤성규(선문대, 책임) 김연만(한밭대) 김달중(한밭대) 황지인(배재대) 김정순(충남대) 조국인(전북대) 양현철(나사렛대) 김원보(제주대)

자문위원
이상윤(전 한남대) 박경자(전 고려대) 정동빈(전 중앙대) 전병만(전 전북대) 현태덕(전 안동대) 이자원(전 국민대) 권희상(전 한밭대) 민찬규(한국교원대) 이은표(전 을지대) 송해성(공주대) 이종복(목원대) 김종훈(제주대)